

Architecture

Domus

Architectural Record

A+U

건축문화

신건축

Architecture

97년 2월호

체코 프라하에 세워진 Frank O. Gehry의 작품 프레드와 진저를 표지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이번 호에서는 건축에 대한 일반 건축주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건축가의 축소된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는 건축계의 미니멀리즘에 대해 알아본다.

프레드와 진저

▶체코 프라하의 국립 네덜란드 관은 그 자유분방한 형태에서도 드러나듯이 Frank O. Gehry의 작품이다.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두 개의 원통은 각각 정과 동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조화는 옛 할리우드의 뮤지컬 배우 프레드 아스

테어와 진저 로저스를 연상시킨다. 고딕, 르네상스, 아르누보 등 각종 양식의 건물들이 격자형의 도시구조 안에 모여있는 프라하 블타바 강변의 부지에, Gehry는 체코 건축가 Vladimir Milunic이 세운 계획을 안에서 그와 협동작업을 하였다. 체코 대통령 Vaclav Havel은 19세기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너무 입체 파격적이지 않은 건물을 원했고, Gehry는 주위 건물들의 구체적인 형태언어보다는 형태자체를 읽음으로써 그것들의 패데먼트, 장식, 개구부들이 가진 비례를 차용해 왔다.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Gehry는 뛰어난 조각가의 솜씨를 보여주지만, 그 능력은 아쉽게도 입면처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기능상 무리한 처리들이 보이는 것이 단점으로 남는다.



체코 프라하의 국립 네덜란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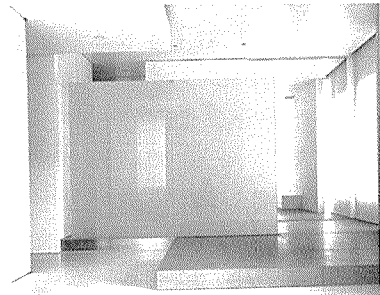
건축계의 미니멀리즘

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의 경우, 그 본사 건축을 통하여 PR을 하기보다는 전기매체를 통한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사회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가들은 이러한 제한을 다시 새로운 양식으로 바꿀 방법을 찾았으니, 그것이 미니멀리즘이다.

▶뉴욕의 건축가 Daniel Rowen과 Frank Lupo가 설계한 한 유럽사업가의 아파트는 미니멀리스트 건축이 갖는 지적인 고품격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근래의 고급주택은 장식이 가득찬 종래의 궁전개념에서 바뀌어 이러한 극단적인 극소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건축계가 위기적 상황의 조건을 의미화, 양식화하는데 또다시 성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양식이 다시 부유층의 전유물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사업가의 아파트 (Daniel Rowen+Frank Lupo 作)

그러나 이러한 미니멀리즘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상업적으로 미니멀리스트 건축물을 선호한 것은 패션계였고, 80년대 중반부터 뉴욕 매디슨 가에는 랄프 로렌, 캬빈 클라인 등이 건축주인 미니멀리즘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피터 마리노에 의해 설계된 조르지오 아르마니 부티크는 다양한 요소들이 삭제된 채 오직 스케일, 비례, 위계에 대한 경시만이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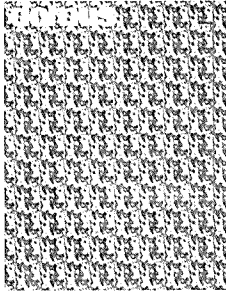
기타

▶Arquitectonica나 Rem Koolhaas의 근작에서 그 영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근대 건축가 Morris Lapidus(현재 94세)와의 인터뷰, ▶캐나다 브리티시 콜로비아에 설립된 Paktau Architects 설계의 공립 국민학교에서 볼 수 있는, 철골과 목재를 혼용한 새로운 구축법, ▶교량 등 토목 구조물들의 구조법을 차용하여 목재, 구리판 등의 재료를 조합시킴으로써 미국 위스콘신의 산림과 조화를 이룬 Vincent James의 주택작품 등을 다루고 있다.

Domus

96년 12월호

제6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 맞춰 이번 비엔날레의 총감독인 한스 홀라인과의 인터뷰를 계



재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요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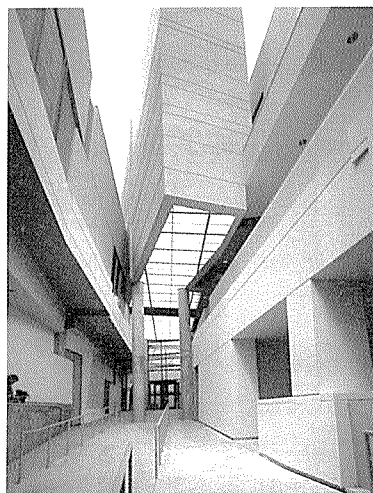
또한 동경과 파리에서 열렸던 전시회와 대표적인 국제 테크놀로지 박람회인 「Ars Electronica」가 소개되었다.

비엔날레에 대하여

사고, 구축, 상징; 장소, 형태, 사회, 기술; 지금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 - 이러한 요인들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밑바탕이 된다.

“미래 예측하기 - 지진계로서의 건축가”라는 제목의 제6회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 맞추어 Dietmar Steiner의 Hans Hollein(본 비엔날레 총감독)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을 분류하였다.

▶Peter Eisenman의 미국 신시네티 Arnoff Center for Design and Art



▶Van Berkel & Bos의 네덜란드 로테르담 다리



▶Rafael Violy의 일본 Tokyo International Forum

▶Eduardo Souto de Moura의 포르투 주거 건물

▶뉴욕 콜롬비아 대학내의 Casa Italiana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또한 북유럽의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Nielsen, Nielsen & Nielsen의 덴마크 건축가회관, ARRACK Architects의 Hannu Kiiskila가 설계한 핀란드 국경 통관소, Soren Robert Lund의 덴마크 코펜하겐 Ark 현대 미술관, Anders Wilhemson의 노르웨이 목장, 그리고 Uti & Inni Architects의 아이슬란드 하수처리장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전시회

▶Shiro Kuramata전 (동경 하라 현대 미술관, 1996년)

얼마전 세상을 작고한 Kuramata는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인을 통해 일본 근대 디자인계를 주도해온 인물 중 하나였다.

▶Frederick Kiesler전 (파리 풍피두 센터, 1996년 7월3일~10월21일)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건축가 겸 디자이너, 화가인 Kiesler의 다매체의 작품들이 파리에서 전시되었다.

파리는 지난 1925년 Kiesler가 근대 산업 및 장식 예술 국제박람회에서 큰 성공을 거둔 곳이기도 한 전시회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전시회의 배치계획을 맡은 Zvi Hecker는 자신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Kiesler의 개방된, 흐르는 공간 개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디자인

각각 다른 방법을 통해 유럽의 산업디자인을 주도하고 있는 30대 이하의 세 디자이너 Carlo Colombo, Peter van der Jagt, Michael Young의 작품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와 개인별로 다양하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선보이고 있는 필립스사의 휴대용 통신, 오락기기 시바 등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였다.

이벤트

대표적인 국제 테크놀로지 박람회인 Ars Electronica가 린즈에서 시작되었다. 생물학자 Richard Dawkins가 언급한 문화계 정보의 기본단위인 'memes'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박람회는 물건들을 전시해놓는 기존 박람회와는 달리 통신의 과정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전시회가 개최된 Ars Electronica Center는 Klaus Leitner, Walter Hans Michl의 공동작품으로 다양한 미래지향적 매체의 전시와 이용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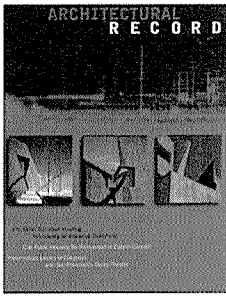
▶뉴욕에 있는 필립 존슨의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안내지도, ▶Frank Lloyd Wright의 작품을 총망라한 CD-ROM, ▶벨기에 현대 건축, Viollet-le-Duc에 대한 최근의 저서, ▶새로운 건축

재료에 대해 간략히 다루었다. 디자인 연구 전문지 Stileindustria가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2월호

근작으로는 Eric Owen Moss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새미타워 빌딩, Machado와 Silveti의 뉴욕 Robert F. Wagner Jr. 공원, Helffand Architects와 Ehrenkrantz & Eckstut Architects의 펜실베이니아 스와스모어 대학 콜버그 관이 소개되어 있다. 건물유형에 따른 연속기획에서는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문제와 모범적인 예들을 게재하였고, 도시의 공동주거 재정의 문제, 쿠바의 건축, 건축물의 조명에 대해서도 아울러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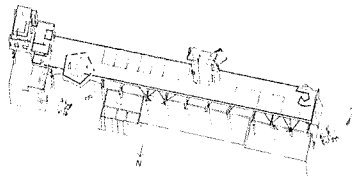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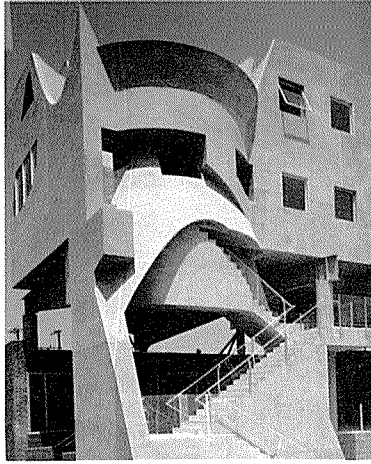
근작 소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새미타워 빌딩은 기하학적 형태의 중첩을 선호하는 Eric Owen Moss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콘크리트, 벽돌, 철골, 목재 빔 등의 다양한 재료가 구조적 효능과 더불어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건축물은 또한 개발업자들과의 원만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뉴욕 부두가에 위치한 Robert F. Wagner Jr. 공원은 도심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주위를 조망할 수 있는 기단을 형성하면서 그 일부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였고 ▶Helffand

Architects와 Ehrenkrantz & Eckstut Architects가 설계한 펜실베이니아 스와스모어 대학 콜버그 관은 대학내의 기존 건물들과 어우러지는 입면계획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미국 L.A의 새미타워 빌딩(Eric Owen Moss 작)

도시의 공동주거에 대하여

40~50년대에 형성된 시카고의 카브리나-그린 공동주거 단지는 도시 속의 대표적인 슬럼가로 퇴락하였다. 이에 시카고시와 HUD(미 주택 및 도시개발 위원회)는 이 지역을 다양한 용도와 소득층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5년전 프루잇-이고가 결국 파괴되었던 것과 달리, 더 복잡적이고 비정치적인 접근법은 이 지역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직업을 갖는 등 사회적인 하부구조가 궁극적으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만 가능할 것이다.

쿠바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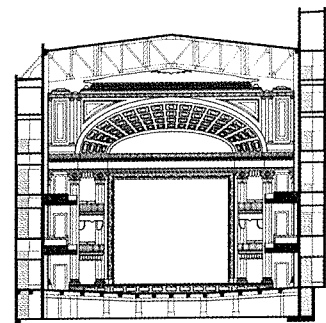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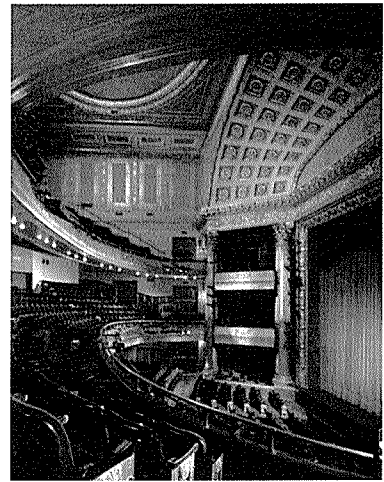
사회주의 이상의 몰락과 함께 변환기에 있는 쿠바는 많은 고건축물들을 보존하고 있다. 공산주의 정권은 그 자신들을 건축 유물의 상속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보존에 큰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연속기획-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건축물들에 대한 보존은 이제 산업, 상업 건축물이나 심지어 근대의 건축물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여 도시 재개발과의 상호 영향, 소유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근래 과학기술의 발전은 보존공사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루어내게 하면서, 그러한 건축물의 현대적 이용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모범적인 보존과 독자적 증축의 조화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 ▶미국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
- ▶미국 볼티모어 오커트 가 교회
- ▶미국 샌프란시스코 개리 극장



미국 샌프란시스코 개리 극장

건축물의 조명

건축물에 있어서 조명기구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본지에서는 1년에 4번, 조명에 대한 중점적인 기사를 다루기로

하였다. 근작들에서 보이는, 다양한 기능들에 부합하는 조명의 예들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조명제품들과 그 구입 연락처가 함께 게재되어 있다.

기타

- ▶ 사무실 건축에서의 배선 문제 해결안,
- ▶ 대규모 건축물에서의 새로운 엘리베이터 시스템 등이 소개되어 있다.

A+U

97년 2월호

이번 호에서는 Tony Fretton의 Lisson Gallery를 포함한 3개의 작품과, George Ranalli



의 KLoft, Jos Paulo dos Santos가 작업한 Loios 수도원의 호텔로의 증개축, 요트클럽 'L' Estartit'를 포함한 Carlos Ferrater의 6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연재물로는 '전후의 현대주택' 제 2회분이 소개되었다.

Tony Fretton

Fretton의 작품인 Lisson Gallery 1(1986)은 기존의 화랑지역과는 거리를 둔 영국 런던의 노동자 주거지역에 지어졌다. 전면은 좁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을 한 대지에 맞추어 설계된 이 갤러리는 무질서한 세팅속에서 예술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Lisson Gallery 2(1992)는 런던의 중심에서 그리 멀지않은 주택과 상점이 늘어난 곳에 위치한다. 이는 학교, 고층빌딩, 고속도로가 기존의 지역환경을 파괴

하여 파편화되어버린 곳에서 그래도 현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마련된 갤러리이다. 이 건물은 건물과 지역사회가 상호보완관계에 있도록 하고 있다. Lisson Gallery 1,2 모두 주위의 건물들에 스스로의 모습들을 맞추고 있으며 결코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Center for Visual Arts in Sway(Sway, Hampshire, U.K. 1996)는 소규모의 예술 센터로 마치 주택과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다. 네오 버나쿨라의 건축이 되도록 소재들이 선택되었으며,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질서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새롭고 사람들의 총의가 모여지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George Ranal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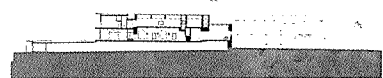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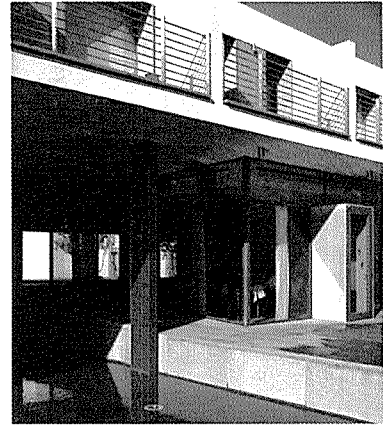
K-Loft in New York(New York, N.Y. 1995) 이 프로젝트는 두 사람의 예술가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Chelsea에 있는 2,100평방 피트의 로프트 개축이다.

기존의 공간은 벽돌로 된 단일한 공간으로 되어 있었고 노출된 벽돌의 벽이 길이 방향으로 연속되어 있었으며 천정도 벽돌로 된 볼트로 되어 있었다. 이 공간을 주택으로 개조하면서 플라스틱과 목재로 된 매끄러운 벽면이 추가되었으며 이들 면은 그대로 보전된 천정과 가끔씩 노출된 기존의 벽돌벽의 거친 벽면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Jos Paulo dos Santos

Loios수도원의 호텔로의 증개축(Arraiolos, Portugal 1993-1996)

포르투갈의 남부에 있는 Loios수도원은 감추워진 조화와 연결되지 않는 울동감, 희미해진 좌우대칭을 가진 모두 흰색으로 된 건물이었다. 중정과 회랑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건물에 새로이 증축된 부분을 더하여 또하나의 중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근대의 조형언어를 그대로 사용한 증축부분은 기존의 건물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이 건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전진과 침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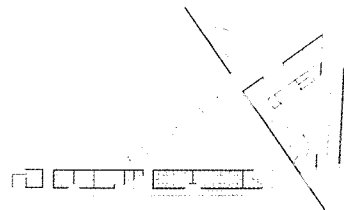


Carlos Ferrater

Ferrater의 장점은 순수기하학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기능상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최적의 구성이 되도록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르셀로나 건축학교에서의 교수로서의 경험은 그의 작품에서 불분명한 점이 없이 명확하고 명시적인 작품세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요트클럽 L' Estartit, Hotel Rey Juan Carlos I 과 그 부속시설인 Fitness Center "Holiday Gym", 그리고 Local Council Chamber in Baix Llobregat, School in Lloret de Mar, Single Family House in Vallvidrera 등 총 6작품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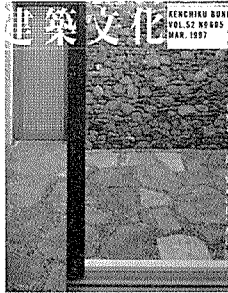


요트클럽 L'Estartit(Carlos Ferrater 作)

건축문화

97년 3월호

이번호에서는 다케하라 요시지(竹原義二)의 주택작품들이 특집으로 소개되었다.



『間과廻遊의

住宅作法』이라는 주제하에 소개된 그의 작품들은 다시 4개의 작은 주제로 나누어 모두 11개의 작품이 다루어졌으며, 그의 작품세계에 관한 작가 자신의 에세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장소'가 소개되었다.

다케하라 요시지-間과廻遊의 주택작법

▶원점으로 돌아가는 장소

그의 작품세계의 출발점이 되며 근간을 만들어낸 경험에 관한 작가 자신의 글에서 '건축과의 첫 만남', '건축의 원점을 파고드는 여행'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세계각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건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각 실들이 이웃한 실들에게 연결되고 나아가 외부와 내부가 일체가 되어 다양한 스케일감을 제공하는 수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존재하는 벽

그는 벽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 공간을 인식하는데 있어 기둥과 벽은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벽의 힘은 공간을 분할하고 건축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그는 도시속에 건축을 만들어 넣을 때 자연을 향해 자립해 있는 벽의 존재방법을 생각한다고 한다.

그는 벽의 표정들을 연출하고 있다. 벽이 주제로 되어 소개된 작품들은 '누리아즈꾸리', 호잔쵸의 집 등 2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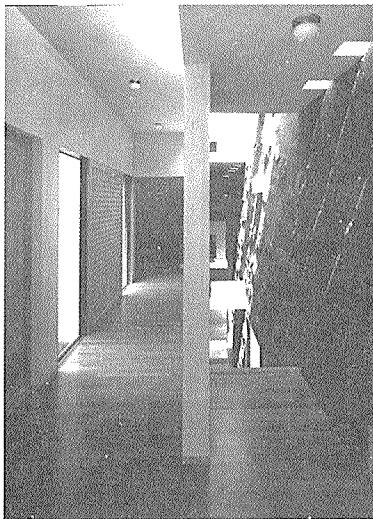


누리아즈꾸리

▶빛과 벽의 텍스처

벽의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빛과 그 벽의 텍스처의 역할을 강조한다. 벽에 빛이 비추어질 때 벽은 침묵하는 無의 벽에서 표현하는 有의 벽으로 변화한다. 그때 벽은 건축공간에 힘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빛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반사하는 바닥면과 벽, 천정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주제로 되어 소개된 작품들은 이시마루 주택, 센리야마 주택 등 2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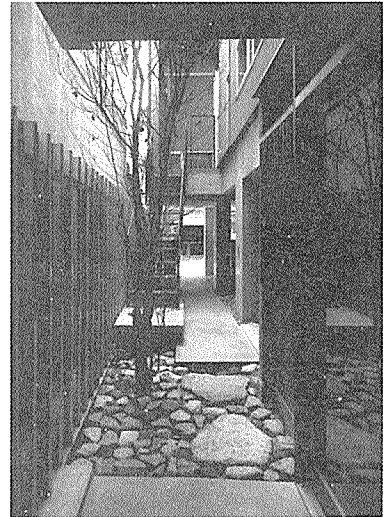
이시마루 주택

▶깊이 들어가는 집

도시에 산다는 것은 사람, 물자, 정보의 바다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심감이라는 심리적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의 도시는 사람들이 집합하는場이기는 하나 쾌적하게 머무는場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일본의 관서지방의 도심에는 지금도 2차대전 이전부터 있어온 長屋形의 깊이가 깊은 집들이 남아있다.

이들로부터 모티프를 얻은 작가의 '깊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주제하에 소개된 '개구부가 절재된' 작품들은 고토부키 주택Ⅱ, 고토부키 주택, 아마사카 주택Ⅰ 등 3작품이다.



고토부키 주택

▶廻遊式 주거

'여행하는 집'이라 해석되는 이 주제는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산책로와 일본 정원에서 느낄 수 있는 '정원에 있어서 운동의 공간화'에서 그 모티프를 찾아볼 수 있다. 그의 건축의 주제들은 여기서 더욱 통합되어지고 풍부해지고 있다.

『廻遊式 주거』라는 주제하에 소개된 작품들은 신보인초의 주택, 아마사카의 주택Ⅰ, 쓰미요시아마테의 주택, 톤노수의 주택 등 4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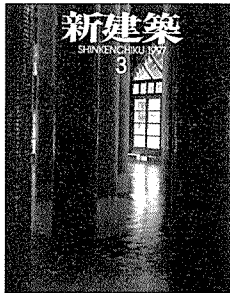
기타

그 외 ▶'건축 21세기'에서는 '역사적 근대건축의 수복과 보존'이, ▶연재물로는 '근대에 있어서 심적 신체와 그 공간 제2회 - 니진스키의 공간Ⅱ', '공간의 시네마토 그라피 - 幻影의 파시즘'이 실렸다.

신건축

97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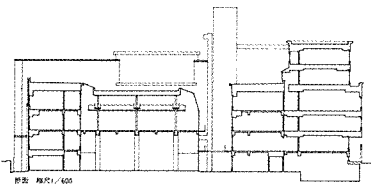
이번호에서
는 작품으로
동경대학 공
학부 1호관,
동경대 대학
원 수리과학
연구과동,
Monte E-



ste, Five 등 19개의 작품들이 소개되었
다. 시공현장으로는 마꾸하리 Messe의
현장이 소개되었으며 Tokio계획 1997
의 Project-030이 소개되었다.

작품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 (고야마 히사
오 설계)



동경대 공학부 1호관(고야마 히사오 작)

공학부 1호관의 건물은 1935년에 지어
진 건물로 주로 건축학과와 토목학과가
사용하는 건물이다. 구 건물은 고딕스타
일의 의장을 지닌 2개의 중정을 갖는 건
물이었다. 이 2개의 중정을 메우고 건물
의 뒷편에 증축된 건물을 덧붙여 새로운
건물로 증개축하였다.

기존의 벽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건물
의 전면과 측면은 옛모습을 유지하였으
며, 후면의 증축부도 전면 유리를 통하여
기존의 외벽을 볼 수 있다.

제도실과 실험실로 개조된 기존의 중정
부분도 그 외벽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험
실의 내부의 벽이 되고 있으며 실내의 벽
이된 이들 기존 타일마감 외벽들은 새로
이 마련된 매끄러운 표면의 벽들과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중정부분에 마련된 실험실들은
옛 중정이 가지고 있던 공간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천정으로부터 빛을 도입하여
활력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Monte Este (오에 타다스/ PLA-
NTEC 설계)

이 건물은 山—證券投資信託委託에 근무
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기숙사와
연수시설을 중심으로한 복합시설로 노후
화한 기존 기숙사의 대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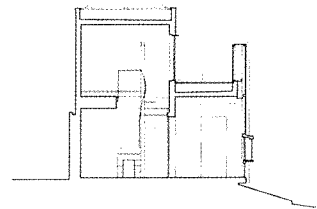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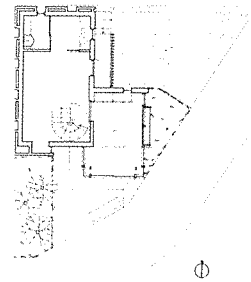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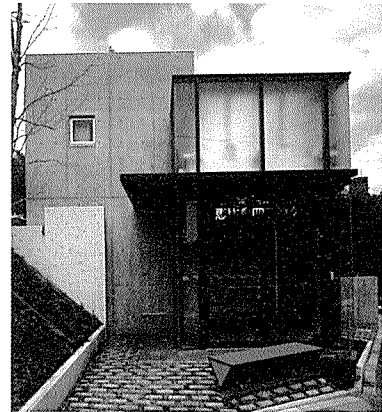
설계에 있어서 유의점은 기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후생시설을 제안하는 일과 각
각의 용도가 갖는 다양한 '時感'이 있는
프로그램 만들기였다고 작가는 밝히고
있다.

▶아까리의 交番 (히라꾸라 마오코 설
계)

작은 交番(Police Box)인 이 건물은 지
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
빛의 발산을 하나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
로 다루고 있다.

1층의 사무실과 대기실, 2층의 휴게실로
구성된 이 작은 건물에는 전면의 교차로
와 후면의 장래에 생길 공원에서 노는 아
이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전면에 마
련된 작은 전정은 소규모의 건물에 생명
력을 더하고 있다.

Five (Architect 5 Partnership) Ar-
chitect 5의 사옥인 이 건물은 좁은 대지
에 위치한 8층 건물이다. 사옥건물과 함
께 Architect 5는 '제도판 없는 사무실'
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실의 운영
모습이 소개되었다.



아까리의 交番(히라꾸라 마오코 작)

TOKIO계획 1997 : Project - 03 Glassfarm Village

테크놀러지의 진보에 의하여 다음세기의
임해공업단지에서는 식물공장이 만들어
져, 도시를 위한 식물의 생산이 행해질
것이다. 이 때 테크놀러지컬한 식물공과
주거가 혼성된 새로운 전원도시가 출현
한다. 이곳은 인공자연적인 생상의 장임
과 동시에 사람들이 사는 장소인 것이다.

〈번역 / 최원준, 강상훈〉